

원양산 오징어 신속 공급으로 오징어 수급 불안 해소

- 송명달 차관, 원양 선사 간담회에서 원양 오징어 국내 조기 반입 요청
- 오징어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 비축물량 방출, 민간 구매지원 물량 방출 등 적극적인 공급 확대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3월 14일(목) 오후 2시 서울에서 원양 선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원양 오징어 조업 현황과 국내 공급 시기 등을 점검한다.

포클랜드에서 주로 생산되는 원양 오징어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생산이 다소 부진했으나, 올해 2월부터는 생산량이 증가하여 3월 1주(~3. 9.) 기준 약 1만 9천 톤이 생산되었으며, 현재 추세로 볼 때 생산이 종료되는 5월까지 전년 수준(약 3.2만 톤)만큼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주요 원양 선사 대표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오징어 조업 현황을 확인하고, 생산된 오징어가 4월부터 조기에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각 선사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조업 중 철저한 안전관리, 국제 규범 준수 등도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가격 안정을 위해 2월 22일부터 대형마트에서 ‘정부 비축물량 반값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징어 가격 안정세를 이어 나가기 위해 당초 3월 22일 종료 예정이었던 특별전을 4월 14일까지 연장한다. 또한, 정부 민간 구매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보유한 오징어 200톤을 방출 하도록 하는 등 오징어 공급 확대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송명달 차관은 “국민들이 즐겨 먹는 대표 수산물인 오징어는 작년에 생산이 부진하여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속적인 정부 비축물량 방출과 할인 행사 등으로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라며, “오징어 가격이 조속히 안정 되도록 원양 오징어를 신속하게 시장에 공급하는 한편, 민간과 정부가 보유한 물량도 추가로 공급하여 오징어 수급 불안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수산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기원 (044-200-5440)
	유통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정재훈 (044-200-5447)
	수산정책관	책임자	과 장	고경만 (044-200-5360)
	원양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김경정 (044-200-5366)